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전략적 리스크와 핵 비확산 정책의 영향

일본의 관점

아키야마 노부마사

---

2023. 02.

# 저자 소개



## 아키야마 노부마사

히토쓰바시대학 국제 및  
공공 정책 학과장  
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 겸임  
연구원

APLN의 멤버인 아키야마 노부마사는 히토쓰바시대학의 국제 및 공공 정책 학과장이자 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의 겸임 연구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저명한 국제 그룹의 회원으로서 2000년부터 NPT 검토 회의의 일본 대표단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No first use’ in the context of the U.S.-Japan Alliance,” Asian Security, (2021), “AI Nuclear Winter or AI That Saves Humanity? AI and Nuclear Deterrence,” Joachim von Braun, Margaret S. Archer, Gregory M. Reichberg, Marcelo Sanchez-Sorondo, eds, Robotics, AI, and Humanity (Springer, 2021)가 있습니다.

일본이 당장 핵 옵션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구조적 요인이 충분하지 않지만, 일미 동맹이 불안정해지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안보 문제, 우선순위 및 전략적 위협에 대한 인식:

- 일본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은 더 도전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중국은 인터넷과 우주 공간을 비롯한 새로운 영역뿐만 아니라 핵 및 재래식 병력에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중국의 대만 침략 위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에서 더 자주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에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운반 시스템을 시험하며, 더욱 견고한 핵 보유 능력을 획득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일본의 주요 정책 변화와 지속성:

- 일본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국방 계획 개요 및 중기 방위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점차 커지는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한 대처 방법과 일본을 위해서 더 유리한 보안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 동아시아에서 커지고 있는 위협의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국방비, "반격 능력", 확장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 일본의 핵무기에 대한 접근과 핵 비확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 미국이 제시한 확장된 핵 억제력의 신뢰성과 신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현재의 동맹 협정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 미국의 아시아 철수, 한국의 핵무장 또는 미중 화해에서 일본이 남겨지는 상황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현 상황을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일본으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이 당장 핵 옵션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구조적 요인이 충분하지 않지만, 일미 동맹이 불안정해지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본의 핵무기 보유 결정은 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확장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무기 규제 및 위험 관리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며 일본과 미국은 지역의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 호주와 공동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평양과의 위기 관리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기시다 정부의 보안 문제, 우선순위 및 전략적 위협에 대한 인식

일본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은  
더 도전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은 더 도전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과 우주 공간을 비롯한 새로운 영역뿐만 아니라 핵 및 재래식 병력에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운반 시스템을 시험하며, 더욱 견고한 핵 보유 능력을 획득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에 관해 일본이 인식하는 위협은 단지 군사 능력의 양적 요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국으로부터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일본 내에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 무엇보다 핵무기로 무장한 초강대국이 비핵국인 이웃나라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2021년 3월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데이비슨 지휘관은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sup>1</sup> 대만 해협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와 비슷한 위협의 두드러진 예로 간주하는 일본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행정부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두려움이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데이비슨 지휘관의 예측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도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해상을 지배하고,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본 내에서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만의 미래가 중국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히 심각합니다.

기능 면에서 중국은 핵무기 저장량을 꾸준히 구축하면서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DF-5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사정 거리 12,000km)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핵 억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정 거리가 확장되고 다중 개별 유도 재진입 추진체(MIRV)를 갖춘 DF-5B 버전은 2010년대에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DF-31은 전송 설치 발사 장치(TEL) 버전으로 200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장거리의 MIRV 지원 버전 DF-41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JL-2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정거리 8,000km)을 갖춘 전략 원자력 잠수함 6척과 CJ-20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을 갖춘 H-6K 전략폭격기를 운용 중입니다. 사정 거리가 8,000km인 SL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제1열도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사정거리가 12,000km인 SLBM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주변의 바다를 통과하는 서태평양 항로의 확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더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수백 개의 사일로를 건설 중입니다.<sup>2</sup> ICBM 이 모든 사일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미국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므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하위 전략 차원에서 신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MRBM(사정거리 2,000km)인 DF-21 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뿐만 아니라 2016 년 공개된 최신 핵변형인 DF-21E 도 모두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16 년에 함께 공개된 도로 이동식 DF-26 는 사정거리 4,000km 의 고체 연료 IRBM 입니다. 이는 해상에서 항해하는 대형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 요격 미사일(ASBM)로 간주되며(대함 변종 DF-26B 는 2020 년에 시험함)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sup>3</sup> 2021 년에 중국은 음속의 5 배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미끄러지듯 날아가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하면서 목표물에 명중하는 무기인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갖춘 MRBM 인 DF-17 을 배치했습니다. DF-17 에 실린 HGV 는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sup>4</sup> 논리적으로 볼 때 미 국방부가 예견한 것처럼 중국이 핵탄두의 양을 늘리고 있다면 핵탄두는 전략물자뿐 아니라 하위 전략물자 운반차량에도 탑재될 것입니다.

2021 년 8 월에는 중국이 HGV 를 실은 부분 궤도 폭격 시스템(FOBS)의 발사 시험을 시행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은 우주에서 지상의 어느 위치로든 HGV 를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기능이 중국에 미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승부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sup>5</sup>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관해 시진핑은 2022 년 초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정치 보고서에서 대만 재통일을 위한 옵션으로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sup>6</sup> 이 선언을 통해 이전에는 중국의 정책이 대만 측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측이 현재 상황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sup>7</sup>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이러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품 경제 붕괴, 인구 고령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경제 성장의 차질로 중국 경제가 곧 장기적인 감퇴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망이 실현된다면 경제력에서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망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명백해지게 되면 중국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어질

북한은 '전술 핵무기' 개발과 15,000km 범위 내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명중률 향상, 핵 선제 공격 및 보복 공격 능력 개선으로 핵 보유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 공격의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되기 전부터 표출되었습니다.<sup>8</sup>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중국 지도자들의 심리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지금 시점에는 미지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은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 더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권위적인 초강대국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비핵국인 이웃을 침략하는 상황은 중국이 동아시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일본 국민에게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여 통합한다면 중국은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대만 동해안 수역의 항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 바다의 항로 보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중국의 대만 통제는 일본에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sup>9</sup>

2022년 8월에 있었던 전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본토 주변에 6개 훈련 구역을 설립해 군사 훈련을 하였습니다. 훈련 구역 중의 하나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가 포함되었는데, 대만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 훈련의 목표는 오키나와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sup>10</sup>

2021년 12월에 아베 전 총리는 대만의 우발적 사태는 일미동맹의 우발적 사태라고 했습니다.<sup>11</sup> 만약 미국이 대만 공격 사태를 지원한다면,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대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고, 일본의 자위대는 군수 지원 작전과 주일 미군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만이 침략 당하면 일본은 불가피하게 연루될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중국이 일본의 미군 자산과 SDF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견해는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일본에 공격을 개시하지 않고 단순히 미국을 지원하는 일본을 위협하더라도 대만을 향한 미국 지원 작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국에서 일본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북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서 오는 위험 외에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일 미군 기지와 SDF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될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 생존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현대 재래식 군대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핵 억제 능력 구축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탄두의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개발과 15,000km 범위 내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명중률 향상, 핵 선제 공격 및 보복 공격 능력 개선으로 핵 보유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및 표준화하는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착수했으며, 계속해서 "더욱 전술적인 용도를 위해 핵무기를 더 작고 더 가볍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up>12</sup> 또한 2022년에는 2018년 이후 중지했던 IRBM 급과 그 이상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으며, 신형 ICBM 급 탄도 미사일의 발사와 핵 보유 능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 실험을 통해 추정되는 핵무기의 기술적 성숙도에 근거하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노동 미사일과 같은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핵 공격을 가능하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에는 낮고 불규칙한 궤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가 재개되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철도 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을 추가하여 발사 모드를 다양화하는 것은 무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며, 불규칙한 궤도를 추가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최근 평양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조작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전술 핵 작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체재 생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를 통해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전략에 의해 추진됩니다. 또한 재래식 병력의 열등함에 직면하여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전술 핵 능력을 획득하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상황 관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한 내부의 객관 전략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sup>13</sup>

이처럼 중국과 북한은 핵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두 나라의 핵무기 정책은 확고한 지역 전략 개발의 전조입니다.<sup>14</sup>

# 일본의 주요 정책 변화와 지속성

2022년에 일본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국방 계획 개요 및 중기 방위력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일본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국방 계획 개요 및 중기 방위력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보유 능력의 위협 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일본에 더 유리한 안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만 위기나 한반도의 우발적 사태와 같은 일본 인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 중에 동아시아의 증가하는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비 문제, 두 번째는 '반격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된 핵 억제력의 신뢰성입니다. 다른 문제들로는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억제 거부 및 완화를 통한 회복력 향상 문제와 탄약 공급 능력과 같은 전투 지속 능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 언급한 세 가지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간략하게 논하겠습니다.

미국은 부드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 국방비 증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정 정책 및 여론에 대한 염려로 일반적으로 GDP의 1%의 지출 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립 여당 내에서 지출 한도를 높여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의 2%로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NHK 여론 조사의 응답자 55%와 산케이 신문 조사 응답자 62%가 일본 국방비 증가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여론 변화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관련 각료들에게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까지 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통적으로 공세적인 공격 착수와 반대되는 태세를 취하며, 일본의 영토 안에서 공격을 막고 예방하는 능력만 유지하는 '독점 방위 지향 정책(EDOP)' 또는 센슈 보에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미 안전 보장 조약에 따라 선봉에서 적을 공격하는 역할은 미군에 맡기고 주로 방어적인 방패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주일미군 자산과 일본에서의 자위대 기지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만이나 한반도 어느 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기존의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공격을 예방하기에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주일 미군과 SDF 자산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할 유인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추가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진영에서 다른 군사 자산에 더불어 탄도 미사일과 다른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격 능력을 구비하면 일본은 미국이나 협력 국가에서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반격 태세를 재정립하면서 상대방의 반격 능력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전략적 목적 달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직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비추어 어떤 형태로든 핵 공유 합의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제안에 따르면 이러한 반격 능력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기 방어 능력으로서 EDOP 와 일치할 것입니다. 케이 신문과 FNN 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이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62.1%로 과반수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여론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sup>15</sup>

다른 중요한 문제는 확장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는 미국과 NATO 의 핵 억제력이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의 핵 억제력에 의해 보호받았다면 러시아에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집단적 자주 국방을 위한 어떠한 법적 협의도 없는 미국의 확장된 핵 억제력 약속은, 당연히 일본, 조약 동맹국들, 우크라이나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 시점에 미국의 지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직후인 2022 년 2 월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비추어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핵 공유 합의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는 57%의 응답자가 핵 공유에 대해 최소한 논의는 되어야 한다고 동의하였습니다(만약 아직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sup>16</sup>

그러나 일본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운용하는 전투기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들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핵 기획단을 통해 공동으로 이뤄지는 NATO 식 핵 공유 협정이 미국의 확장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핵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본에 필요한 것은,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는 작전 계획에서 미국과 긴밀하고 더 제도화된 협의와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강화된 자세일 것입니다.

# 핵무기와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건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경쟁하지 않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집단 방위의 조약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자국의 방어 및 억제 능력에 어쩔 수 없이 핵 성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시한 핵무기와 억제력에 대한 우려는 동맹 협정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핵 공유의 추구나 일본의 독자적인 핵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물러날 가능성입니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경쟁하지 않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집단 방위의 조약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자국의 방어 및 억제 능력에 어쩔 수 없이 핵 옵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핵무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얻는다면 일본 역시 핵무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주요 비핵무기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일본이 뒤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중은 일본의 핵무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중 화해에 의한 닉슨 쇼크와 같이 일본이 뒤쳐지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안정은 일본의 안보에 대체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화해는 중국의 지역적 주장에 관한 제약을 종식시켜 불안정적인 역설을 야기할 수 있고 일본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에 의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불거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일본이 핵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촉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증가하는 핵 능력은 일본이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자극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더욱 강력한 방어 능력과 태도를 옹호하도록 정부와 여론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강경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스스로 핵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논쟁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된 핵 억제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므로 일본 미국 간의 동맹을 통한 억제력 강화가 일본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거나 NATO 식 핵 공유 협정에 관여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sup>17</sup>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직 국방부 장관은 NATO 같은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의 핵 보호 아래)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sup>18</sup>

다시 말해 일본의 원자력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불거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일본이 핵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촉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계기가 무엇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일본 미국 동맹이 불안정해지면 핵 옵션이 도쿄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일본 안보에 대한 담화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일본의 결정은 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며 세계의 비확산 체제도 파괴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간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즉, 동맹국으로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한국과 호주와 함께 이 지역에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공동 조치를 취하고, 중국이 무기 규제와 위기 관리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평양과의 위기 관리 대화의 약속도 필요합니다.

# 참고 문헌

- 1 Adela Suliman, "China could invade Taiwan in the next 6 years, assume global leadership role, U.S. admiral warns," *NBC News*, 10 March 2021, <https://www.nbcnews.com/news/world/china-could-invade-taiwan-next-6-years-assume-global-leadership-n1260386>.
- 2 Eg., Jobby Warrick, "China is building more than 100 new missile silos in its western desert, analysts say," *The Washington Post*, 30 June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china-nuclear-missile-silos/2021/06/30/0fa8debc-d9c2-11eb-bb9e-70fda8c37057\\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china-nuclear-missile-silos/2021/06/30/0fa8debc-d9c2-11eb-bb9e-70fda8c37057_story.html).
- 3 Missile Defense Project, "DF-26,"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8, 2018, last modified 6 August 2021,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ong-feng-26-df-26/>.
- 4 Missile Defense Project, "DF-17,"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last updated 2 August 2021,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f-17/#easy-footnote-bottom-2-6423>.
- 5 Timothy Wright, "Is China gliding toward a FOBS capabilit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2 October 2021, <https://www.iiss.org/blogs/analysis/2021/10/is-china-gliding-toward-a-fobs-capability>.
- 6 CK Tan, "Xi vows never to renounce use of force to 'reunify' with Taiwan," *Nikkei Asia*, 16 October 2022, <https://asia.nikkei.com/Politics/China-s-party-congress/Xi-vows-never-to-renounce-use-of-force-to-reunify-with-Taiwan>.
- 7 Kawashima Shin, "Xi Jinping's 'Peaceful Unification' Versus Taiwan's Reality: Can They Be Reconciled?," *Nippon.com*, 12 December 2022, <https://www.nippon.com/en/in-depth/a08501/>
- 8 See for example: Oriana Skylar Mastro, "The Taiwan Temptation: Why Beijing Might Resort to Force,"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6-03/china-taiwan-war-temptation>.
- 9 See for example: Sato Masahisa, *A day when Japan is invaded* (日本が侵攻される日), Gento-sha, 2022.
- 10 "Chinese military drill was a test of a plan of invading Taiwan," *Taiwanese defense authority says* (台湾国防部「中国軍演習は対台湾作戦案を検証したもの」) *NHK News*, 1 September, 2022,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901/k10013797581000.html>.
- 11 "Taiwan contingency is a Japan-U.S. alliance contingency, former Prime Minister Abe said" (「台湾有事は日米同盟の有事」安倍元首相が講演), *Sankei Shimbun*, 1 December 2021,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201-CFE4LFGOZKJBDVS2FOX6LFWQI/>.
- 12 Adam Mount and Jungsup Kim,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Threshold is Frighteningly Low", *Foreign Policy*, 8 December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12/08/north-korea-tactical-nuclear-threat/>
- 13 Kelsey Davenport, "North Korea Passes Nuclear Law," *Arms Control Today*, October 2022, <https://www.armscontrol.org/act/2022-10/news/north-korea-passes-nuclear-law>.
- 14 See, for instance, Michishita Narushige, "War in Ukraine and Security in East Asia" (ウクライナ戦争と東アジアの安全保障), *SSDP Essay*, July 2022, <http://ssdpaki.la.coocan.jp/proposals/111.html>; Boeisho (Ministry of Defence), *Defese White Paper* (防衛白書), 2022,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2/pdf/index.html>.
- 15 "Counter Strike Capability: The majority of supporters of LDP, CDP, and Ishin Party say yes" (反撃能力 自民、立民、維新支持層の半数以上「保有すべきだ」), *Sankei Shimbun*, 14 November 2022,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14-Q3WJU7HJ7JM75CMVSC4EKJCIIG/>.
- 16 "87% was concerned about Japan's security over the war in Ukraine" (ウクライナ侵攻巡り日本の安全保障「不安」87% 毎日新聞世論調査), *Mainichi Shimbun*, 19 March 2022, <https://mainichi.jp/articles/20220319/k00/00m/040/267000c>.
- 17 "Maintain three non-nuclear principles, 'nuclear sharing' won't be acceptable," *Kishida says* (非核三原則を堅持、「核共有」は認められない＝岸田首相), *Reuters*, 28 February 2022, <https://jp.reuters.com/article/japan-kishida-non-nuclear-principles-idJPKBN2KX084>.
- 18 "Debate over 'nuclear deterrence' surfaced as the crisis in Ukraine deepens" (「核抑止」めぐり議論拡大 ウクライナ危機で急浮上—与野党 *Jiji.com*, 2 March 2022,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30101329&q=pol>.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